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리게 되는 형통이 무엇일지 나누어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들일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누릴 복을 가리킵니다.

1.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땅은 이미 오래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창 13:14-17).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오랜 기간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애굽의 감독자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던 그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출 2:24-25). 바로 거기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연단을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밟게 될 땅이 이미 주어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변화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우리는 시선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2.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리는 복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목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하며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복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마주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의 성취, 곧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마 28:20). 이제 우리는 또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합니다(요 14:16-17).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곧 형통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형통으로 번역된 단어는 ‘지혜로운 분별력’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경험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마땅히 가야할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참고. 롬 8:14-17).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영생의 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확실한 약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